

『개정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관주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과 새로운 전망 -시편 2편을 중심으로-

김정우*

교회사 학자인 베인톤(R. H. Bainton)에 따르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폐위하고 성경을 옹립하였다”고 한다.¹⁾ 결과적으로 개신교의 해석학에서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이나 공의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쪽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한다”(Sola Scriptura)는 성경 해석의 큰 원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리는 일면 선명하고 뚜렷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그 성경은 어느 성경이며 (마소라 사본 혹은 70인역),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며, 교회의 전통과 이성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성경 해석의 원리로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 상호간의 연관성을 통한 해석의 체계를 만들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연관된 성경구절들을 서로 연결하는 관주(marginal references)의 작업으로 그 결정체를 이루게 되었다. 물론 관주 작업은 후대의 작업이지만, 성경 안에서도 이전의 전통을 후대에서 재인용하고 재해석하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관주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예, 출 20:8; 신 5:15).²⁾ 이후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기독교적-종말론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을 인용하여 재해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논증하고 있다(고전 15:3-4). 신약성경이 이루어져 가던 과정과 그 이후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의 성경 해석과는 다른 기독교적 해석의 증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권위를 부여한 ‘성구 발췌록’(testimonia)이 있었다는 가설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1) R. H. Bainton, “The Bible in the Reformation,” S. L. Greenslade,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The West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Day*,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2)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8).

에 대하여서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³⁾ 중세교회에서는 성경구절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을 인용하고 연결하여 집대성하는 작업이 우리의 관주 작업과 유사한 ‘사슬’(catena)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초기 ‘사슬’(catena)에서는 일반적으로 크리소스톰과 같은 핵심 인물의 해석을 중심으로 삼고 그 외에 부차적인 해석들을 첨가하였으나, 중기에는 라틴 교부들인 암브로우스, 힐라리, 어거스틴, 제롬 등의 해석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후 아퀴나스(Catena Aurea)에 이르러서는 동방교부의 글들도 많이 채용하게 되었다.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관주 성경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한국 교회사에서 관주 성경에 대한 관심은 1909년 가을 현 대한성서공회의 전신인 성서위원회에서 처음 표명되었다고 한다.⁵⁾

이 때 의장 스웨러(W. C. Swearer)와 서기 아담슨(A. Adamson)을 관주 성경 소위원회에 임명하고 단락 구분이나 구두점 체계 등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어 이듬해 3월 봄 회의 때에는 밀러와 베크로 하여금 『영어개정본』(RV)의 (옥스포드)대학교 관주 성경(Universities' Reference)을 이용한 관주 성경을 준비하도록 하고, 두 사람과 터너 주교(Bishop Turner) 및 번역자들로 관주 성경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관주 성경에 사용될 판독 기호 체계(system of diacritic marks)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미루어 볼 때,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모체가 되는 첫 관주 성경 작업은 권위 있는 공기관에서 세심한 준비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특히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최신 작품이었던 『영어개역(The Revised Version) 관주성경』이 저본(底本)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일이었으며, 한국 교회 성경 해석이 매우 건실한 기초 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 성서위원회의 야심적인 첫 관주 작업

3) 이 가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근본적인 검토에 대하여서는 M. C. Albl, “*And Scripture Cannot be Broken*,”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Early Christian Testimonia Collections* (Leiden: Brill, 1999)를 보라.

4) R. Grant,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London: SCM, 1984), 83.

5)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89.

6) Ibid. 여기에서 『영어개정본』(The Revised Version)은 『흠정역(欽定譯)』(The Authorized Version, 혹은 King James Version, 1611)을 개정한 것으로서, 1870년에 시작되어 신약성경은 1881년 5월 17일에, 구약성경은 1885년 5월 19일에 출판되었다. L. A. Weigle, “English Versions since 1611,”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371. 이 책은 1889년 신구약 성경 전권에 대한 완전한 관주체계를 갖추고 출판되었다. *The New Testament in the Revised Version of 1881 with Fuller Refer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1910), vi. 우리나라의 첫 관주 성경이 1889년 책을 대본으로 하여 1911년에 출간된 것은 매우 신속한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은 이익채(李益采)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911년 6월초에 모든 원고는 완성되었고, 1912년 11월 30일에 『朝鮮文新約全書』로 발행되었다.⁷⁾ 이후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첫 관주 성경을 개정하고 증보하는 과정을 통해 몇 권의 관주 성경을 만들게 되었으며, 우리말 관주 성경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태용 외,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1926)
- 『구역 관주 성경전서』(1930)
-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6, 1962)
- 『관주 성경전서 간이국한문 한글판』(1964)
- 『개정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2002)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6, 1962)⁸⁾은 한국 교회에서 성경공부와 설교의 주된 지침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주석서처럼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제 『개정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2002)⁹⁾을 통하여 『개역한글판』의 관주에 있던 오류들을 수정하여 오류가 더 적은 관주를 완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관주에 대한 첫 전문적인 연구는 민영진의 『국역성서연구』(1984)¹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후 「성경원문연구」에서 전무용의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1999),¹¹⁾ 박동현의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2000)¹²⁾ 그리고 김태룡의 “우리말 성서 ‘관주’의 새 인식을 위하여”(2000)¹³⁾라는 세 개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상의 글에서 한글 성경의 관주에 대한 역사, 특징, 관주의 종류와 성격,¹⁴⁾ 오류,¹⁵⁾ 새로운 시안¹⁶⁾ 등이 다

7) 『대한성서공회사 II』에서는 『신약전서관주』로 표기하고 있다. Ibid., 90.

8)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이후 『개역 관주』로 표기할 것이다.

9) 『개정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이후 『개역개정 관주』로 표기할 것이다.

10) 민영진, 『국역성서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4), 45-54.

11) 전무용,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4 (1999), 65-100.

12) 박동현,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198-244.

13) 김태룡, “우리말 성서 ‘관주’의 새 인식을 위하여,” 『성경원문연구』 6 (2000), 245-267.

14) 민영진은 (1) 인증 관주(예, 마 1:23//사 7:14; 마 2:6//미 5:2), (2) 비교 관주(예, 창 3:8//시 139:1-12; 렘 23:23-24), (3) ‘보라’ 관주(예, 창 5:1의 ‘형상’에 대하여 창 1:26, 27을 ‘보라’고 함), (4) 일반 관주(예, 마 1:2//창 25:26)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민영진, 『국역성서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4), 49-54. 이 관주 체계는 『영어개정본』의 체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New Testament in the Revised Version of 1881 with Fuller Refer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0), ix.

15) 전무용,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66-84. 전무용은 ‘관주의 내용이나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을 잘 찾아내고 있다.

루어져 왔다.

우리는 이 글에서 『개역개정 관주』 성경에 담긴 관주들을 새롭게 평가해 봄으로써, 장차 더 수준 높은 관주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동기가 있다.

(1)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역 관주』만을 중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는 『개역 개정판』이 한국 교회에서 자리를 잡았을 뿐 아니라, 『개역 관주』도 『개역 개정 관주』로 수정되어 출판되었다. 그러나 『개역개정 관주』는 기본적으로 옛 『개역 관주』의 오류들을 바로잡은 수정판이며, 근본적인 개정 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므로 이 작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온 관주는 기본적으로 19세기의 학문적인 성과에 근거한 20세기 초기의 작품이므로, 지난 20세기 동안 이루어진 성서학의 학문적인 성과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3) 이제 우리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성경연구에 대한 탁월한 소프트웨어들과 고도의 전문적인 주석들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역개정 관주』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시점에서 있으므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온 관주의 정확성, 신뢰도,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 작업을 위하여 우리는 시편 2편을 중심으로 『개역개정 관주』의 관주를 아래에 제시된 대표적인 관주 성경들과 비교해 보며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Bible Society's Chain Reference Bible. Good News Edition (1985)*¹⁷⁾

*The NRSV. Harper Study Bible (1991)*¹⁸⁾

*The HarperCollins Study Bible. NRSV (1993)*¹⁹⁾

*New Geneva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1995)*²⁰⁾

*The NIV Study Bible (1995)*²¹⁾

*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2000)*²²⁾

16) 박동현,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240-244.

17) *Bible Society's Chain Reference Bible. Good News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8) V. D. Verbrugge, ed., *The NRSV. Harper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91).

19) W. A. Meek, ed., et al., *The HarperCollins Study Bible. NRSV*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20) R. C. Sproul, B. K. Waltke and M. Silva, *New Geneva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95).

21) K. Barker, eds., et al., *The NIV Study Bible* (Zondervan, 1995).

22) *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BS, 2000).

『해설·관주 성경전서 - 독일성서공회판』(1997)²³⁾

1. 시편 2편의 구조, 형식, 배경 분석

본 시편의 구조에 대하여 모든 외국 관주들은 네 연으로 나눈다(1-3, 4-6, 7-9, 10-12절). 그러나 『개역개정 관주』만이 1-6절을 한 연으로 보며 전체를 세 연으로 나누고 있다(1-6, 7-9, 10-12절). *Harper Study Bible*에서는 각 연마다 제목을 붙여, (1) 버림받은 메시아(1-3절), (2) 주님의 비웃음(4-6절), (3) 승리하는 메시아(7-9절), (4) 주님께서 열왕들에게 권면하심(10-12절)으로 제시한다. 필자가 볼 때에도 네 연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시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²⁴⁾

시편 2편의 마지막 구를 이루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12하)는 시 1:1과 ‘복 있는 사람’으로 수미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관주 성경들(*BSCR*, *Harper Study Bible*, *HarperCollins Study Bible*)에서는 독립된 절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본 시편의 형식이 ‘제왕시’로서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두 개의 책들만 언급하고 있으며(*HarperCollins Study Bible*, *NIV Study Bible*), 『독일성서공회 해설관주』에서는 형식에 대한 언급 없이 배경으로서 ‘유대 임금 대관식’으로만 말하고 있다.

2. 인증 관주

『개역개정 관주』에서는 두 개의 인증 관주(시 2:1, 7)를 제시하고 있다.

(1) 시 2: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에 대하여 『개역개정관주』는 행 4:25, 26을 제시한다. 이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23) 『해설·관주 성경전서 - 독일성서공회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97). 이후에는 『독일성서공회 해설관주』로 표기할 것이다.

24) 필자는 시편 2편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김정우, 『시편주석』 1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5), 163.

1. 열왕들의 메시아 왕권에 대한 도전(1-3절)
2. 시온 산에 메시아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4-6절)
3. 메시아 왕의 우주적인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7-9절)
4. 열왕들에게 메시아 왕권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함(10-12절)

관주 성경들(*BSCR*B, *New Geneva Study Bible*, *NIV Study Bible*, 『독일성서공회 해설관주』, *The Learning Bible*)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시 2:7,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세 개의 신약성구(행 13:33과 히 1:5; 5:5)를 제시한다. 이 점에 대하여 *BSCR*B, *Harper Study Bible*, *New Geneva Study Bible*, *NIV Study Bible*은 『개역개정 관주』와 동일한 입장을 가지며, 나머지 관주 성경들에서는 신약 인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리하자면, 『개역개정 관주』는 신약성경의 구약인용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HarperCollins Study Bible*은 별로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약의 구약인용은 성경 해석과 설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증 관주’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비교 관주

『개역개정 관주』에서는 다섯 개의 비교 관주를 제시하고 있다(2:1, 4, 7, 8, 12).

(1) 시 2:1의 ‘열방’(개역; ‘이방 나라들’[개역개정])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시 46:6, “이방(*goyim*)이 흰화하며 왕국(*mamlakot*)이 동하였더니”(개역)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구절에서는 ‘열방’(*goyim*)과 ‘민족들’(*le’umim*)이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절들을 관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창 25:23; 시 44:3; 105:44; 잠 14:34; 사 34:1; 43:9).

(2) 시 2:1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시 1:2와 비교하도록 제시한다. *BSCR*B는 이 구절을 에 8:3에 나오는 ‘하만의 악한 꾀’와 연결시키며, *New Geneva Study Bible*은 눅 19:14의 ‘포도원 농부들의 헛된 꾀’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 구에서 ‘헛된’(*riq*)이란 단어는 시 73:13과 사 30:7에 나오고 있으므로, 『개역개정 관주』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개역개정 관주』는 ‘헛된’이란 형용사보다 ‘꾸미다’라는 동사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꾸미다’(*haga*)라는 동사는 바로 시 1:2의 ‘묵상하다’와 동일하며, 둘 다 미완료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 『개역 관주』는 음성학적 일치에 근거한 고급 관주를 만들었는데, 이후 편집과정에서 ‘꾸미다’에서 ‘헛되이’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3) 시 2:4, ‘하늘에 계신 이’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사 40: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를 비교하도록 한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관주이므로, 『개역개정 관주』의 역사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 검토하고 있는 모든 관주와 해설 성경들은 이 구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며, KJV의 관주에는 『개역개정 관주』와 달리 단 7:13, 14; 요 5:22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어쨌든 ‘하늘에 앉으신 이’와 ‘궁창에 앉으신 이’라는 두 구절을 연결시킨 것은 놀랍다. 그러나 시 123:1, ‘하늘에 계시는 주’가 정확하게 동일한 구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개정 작업에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4) 시 2:7,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마 3:17,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와 마 17:5,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와 비교하도록 제시한다. 위에 제시된 여러 관주 성경들 가운데 *New Geneva Study Bible*은 마 3:17에 대한 공관복음서 병행구절들(막 1:1, 11; 눅 3:22; 요 1:18)을 추가하지만, 마 17:5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NIV Study Bible*은 마 3:17만 언급하고, 마 17:5는 다루지 않고 있다. 즉, 『개역개정 관주』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산 사건과 연관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역개정 관주』는 이 구절이 삼하 7: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와 직접 연결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시 89:26-27). 즉, 『개역개정 관주』는 신약성경과의 관계는 면밀히 추적하고 있지만, 원래 구약성경의 맥락을 놓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시 2:8, ‘땅 끝까지’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시 72:8; 89:27; 단 7:14를 제시한다. 이 관주는 여러 관주 성경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The NRSV*는 시 22:27만 제시하며, *New Geneva Study Bible*은 침묵하며, *NIV Study Bible*은 시 22:27; 67:7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땅 끝까지’라는 구는 시 22:27; 67:7에 나타나고 있지만(시 72:8; 98:3; 사 45:22; 렘 16:19), 시편 2편과 72편과 89편은 모두 ‘다윗 언약’을 다루는 ‘제왕시’이므로, 이 세 개의 구절을 연결하였다는 것은 놀랍다. 그렇지만, 단 7:14는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절은 아니다.

(6) 시 2:12,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시 146:5,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와 사 30:18,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를 비교하도록 제시한다. 그러나 *BSCR*는 시 34:8과 롬 9:33을 제시하며, *NIV Study Bible*은 시 5:11; 34:8; 64:10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볼 때, 『개역개정 관주』는 의미의 확장에서 적절하지만, 원어에 있어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NIV Study Bible*만큼 정확하지 않다.

25)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London & New York: Collin's Clear-Type Press, 1967).

4. 일반 관주

(1) 시 2:2,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시편을 비롯한 다섯 구절(시 18:50; 20:6; 45:7; 89:20; 요 1:41)을, *New Geneva Study Bible*은 오직 요 1:41만을, *NIV Study Bible*은 삼상 9:16, 요 1:41을 제시한다. 여러 관주 성경들을 비교할 때, 『개역개정 관주』는 시편에 나오는 왕의 칭호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점에 있어서 좋은 관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왕에게 기름 부어 임직하는’ 생생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삿 8:9, 삼상 9:16, 왕상 1:34)을 첨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사장의 임직을 다루는 장면’(레8:12; 민3:3)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다루는 구절(왕상 19:16; 사 61:1)도 참조하도록 제시할 만하다.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세 구절(요 4:25, 행 4:27, 10:38)도 첨가할 필요를 느낀다.

(2) 시 2:3, ‘그들의 맨 것’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렘 5:5, “그들도 일제히 멩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를 제시하고 있다. 시편의 현재 본문에서도 ‘맨 것’과 ‘결박’은 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것은 매우 좋은 관주이며, 렘 5:5 외에 두 구절을 더 첨가할 수 있다(렘 2:20; 30:8).²⁶⁾

(3) 시 2:4, ‘하늘에 계신 이’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시 11:4,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와 29: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yashab)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yashab)”를 제시한다. 본구는 위에 제시된 두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늘의 보좌’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사상을 말하고 있으므로, 간접적 연관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4) 시 2:4, ‘웃으심이여’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네 개의 구절을 제시한다(시 37:13; 59:8; 욥 22:19; 잠 1:26). 이 구절들은 모두 ‘비웃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 관주』는 다른 모든 관주 성경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포괄적인 관주를 제시하고 있다.

(5) 시 2:5, ‘분을 발하며’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계 6:16, 17을 제시한다.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관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제시하고 있는 *NIV Study Bible*의 관주(시6:1; 27:9; 38:1)보다 훨씬 좋은 관주로 보인다.

(6) 시 2:6, ‘거룩한 산’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시편의 네 곳을 참조하도

26) 물론 히브리어 원어는 약간 달리 나타나고 있다. 시 2:3에서는, ‘맨 것’(mosera)과 ‘결박’(‘abot), 렘 5:5에서는 ‘맨 것’(mosera)과 ‘결박’(‘ol)이 대구를 이룬다. 여기에서 ‘맨 것’과 ‘결박’은 동물의 ‘멍에’에 대한 환유(metonymy)로 볼 수 있다.

록 제시한다(3:4; 15:1; 43:3; 99:9). 이 관주는 가능하지만, 이 구는 원래 시편 2:6에서 일인칭 소유격인 ‘내 거룩한 산’이므로 동일한 구를 제시하는 관주가 더 나아 보인다(사 11:9; 56:7; 57:13; 65:11, 25; 66:20²⁷⁾; 욥 4:17; 욥 1:16). *NIV Study Bible*은 구약성경에서 ‘거룩한 산’을 처음 언급하는 출 15:17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절에는 출애굽의 목적지로서,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평행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거룩한 산’ 모티브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따라서 새 관주에서는 첨가될 필요가 있다.

(7) 시 2:6의 ‘시온’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삼하 5:7; 시 110:2를, *NIV Study Bible*은 시편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제시한다(왕하 19:31; 시 9:11; 48:2, 11; 78:68; 110:2; 133:3). 시편에서 처음 나오는 핵심 단어인 ‘시온’에 대한 역사서의 관주로서는 왕하 19:31보다 다윗이 시온 성을 빼앗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삼하 5:7이 훨씬 적절하므로, 『개역개정 관주』는 *NIV Study Bible*보다 더 좋은 관주로 볼 수 있다. 시편에 있어서는 110:2 외에도 ‘시온의 신학적 중요성’을 담고 있는 시온 찬가들과 제왕시에 나오는 구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시 9:11; 20:2; 50:2; 76:2; 84:2, 5; 87:2, 5; 132:13; 146:10). 만약 핵심적으로 연관되는 관주를 선별한다면 시온과 다윗의 선택을 다루는 네 구절(20:2; 76:2; 110:2; 132:13; 삼하 5:7)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8) 시 2:6의 ‘세웠다’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잠 8:23을 언급하고 있으나, 위에 열거된 모든 관주 성경들은 아예 이 단어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동사(nasak)는 원래 ‘붓다’(pour out)라는 뜻으로서, ‘(직분자에게) 기름 붓는다’는 용도로 사용되며, ‘(왕, 제사장, 창조자)로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물의 창조자로 세우는 잠 8: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를 제시하는 『개역개정 관주』는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9) 시 2:7의 ‘너는 내 아들이라’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롬1:4를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NIV Study Bible*은 삼하 7:14를 제시함으로써, 원래의 구약 맥락에 충실한 관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볼 때, 다윗 언약에서 다윗을 ‘아들’과 ‘장자’로 입양하는 시 89:26, 27을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0) 시 2:9의 ‘철장으로’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기독교적 의의를 지니는 신약성경의 세 구절을 언급한다(계 2:27; 12:5; 19:15). 여기서 ‘철장’은 ‘강력

27) 사 66:20에는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 2:6에 대한 좋은 관주로 판단된다.

한 왕권’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시 45:7(‘당신의 왕권은 정의의 왕권’ [공동])과 125:3(NRSV, ‘sceptre of wickedness’; REB, ‘wicked rulers’)을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11) 시 2:9의 ‘그들을 깨뜨림이여’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시 89:23; 욥 34:24를 제시한다. 시 89:23은 본문과 의미론적으로 상통하며, 욥 34:24,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는 마소라 사본과 어휘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제시한 것이다.

(12) 시 2:9의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사 30:14와 렘 19:11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적절한 관주로 보인다.

(13) 시 2:11의 ‘경외함으로’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빌 2:12을, ‘섬기고’에 대하여 히 12:28을 제시한다. 여러 관주 성경에서 *NIV Study Bible*만이 ‘경외함(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라’는 구에 대하여 시 103:11을 제시한다. 필자가 볼 때, ‘경외함으로’와 ‘섬기다’를 구별할 필요 없이, ‘경외함으로 섬기고’를 하나의 구로 묶어서 관주를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빌 2:12; 히 12:28; 고 후 10:5; 벧전 1:2).

(14) 시 2:11의 ‘즐거워할지어다’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가 개념적 모순을 일으켜 매우 난해하므로, *NIV Study Bible*은 ‘떨며’(대상 16:30)와 ‘기뻐하라’(시 9:2; 35:9; 104:34)를 떼어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 *NIV Study Bible*은 본 구절에 대한 구약성경의 관주이므로 신약성경 구절만 제시하는 『개역개정 관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15) 시 2:12, ‘그의 아들에게’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잠 31:2,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를 제시하고 있다. 잠언의 본문은 시편 본문과 어휘의 동일성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관련성과 유사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관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의 ‘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NIV Study Bible*처럼 시 2:7을 참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6) 시 2:12의 ‘입맞추라’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삼상 10:1과 왕상 19:18을 제시한다. 이 구에 대하여 여러 관주들 가운데 *Harper Study Bible*만이 요 5:23을 제시할 뿐이다. 신구약성경에는 ‘입맞추는’ 장면이 상당히 많으며, 이것은 ‘공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창 27:27; 삼상 10:1; 왕상 19:18; 시 85:10; 마 26:48 [배신], 눅 7:38, 45).

(17) 시 2:12의 ‘진노’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앞의 5절에 있는 ‘분을 발하며’를 참조하도록 하며, 이것은 적절한 관주로 보인다.

(18) 시 2:12,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에 대하여 『개역개

정 관주』는 일반 관주와 비교 관주를 구분하고 있는데,²⁸⁾ 이런 구분은 『개역 관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구분을 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를 연역해 가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일반 관주로서 『개역개정 관주』는 네 개의 구절을 제시한다(시 34:8; 84:12; 잠 16:20; 렘 17:7). 이 네 구절은 다음과 같다.

시 34:8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84: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 16:20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만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렘 17: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위의 네 구절들은 모두 ‘복이 있다’에 대하여 일치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복이 있다’에 관주 번호를 붙여야 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전체 문장에 관주 표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에 제시된 네 성구 가운데 오직 시 34:8만 ‘피하다’는 뜻을 가지며, 나머지 세 구절은 ‘신뢰하다’(batach)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관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개역)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개역개정)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의지하다’가 ‘피하다’로 수정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복이 있다’와 ‘피하다’를 함께 반영하는 관주는 시 34:8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전체적인 평가와 새로운 제안

『개역개정 관주』의 시편 2편 관주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좋은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역개정 관주』를 구성하는 체계로서 “인증 관주, 비교 관주, 보라 관주, 일반 관주”의 구조는 여러 관주 성경 체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관주 사례에 있어서 『개역개정 관주』는 비교적 건실하며, 유익한 관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무엇보다도 『개역개정 관주』는 신약과 구약의 연관성을 만드는 관주에 있

28) 위에 있는 2:12에 대한 비교 관주 항의 토론을 보라.

어서 매우 값진 기여를 하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시 2:4, ‘웃으심이여’에 대하여 『개역개정 관주』는 이 웃음을 ‘비웃으심’으로 보고 네 개의 구절을 제시하고 있다(시 37:13; 59:8; 욥 22:19; 잠 1:26). 이 관주를 다른 여러 관주 성경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포괄적인 관주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시 2:6, ‘세웠다’에 대한 잠 8:23의 관주는 탁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20세기 동안 이론 학문적인 발전의 빛 속에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약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1) 오류의 경우

시 2:1, ‘헛된 일을 꾸미는가’에서 관주 기호는 ‘꾸미는가’에 있어야 한다.

시 2:12, ‘그의 아들에게’에 대하여 잠 31:2의 ‘내 아들’을 가져온 것은 어휘는 일치하지만, 의미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2)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시 2:4, ‘하늘에 계신 이’는 『개역개정 관주』의 사 40:22, ‘궁창에 앉다’도 가능하지만, 동일한 구를 담고 있는 시 123:1이 더 직접적이다.

시 2:8, ‘땅 끝까지’에서 『개역개정 관주』의 단 7:14는 문맥과 형식에서 현재의 본문과 거리가 멀다.

시 2:12의 비교 관주에 제시된 사 30:18은 현 본문과 거리가 멀다.

시 2:12의 일반 관주에서 시 34:8 외의 세 성구(시 84:12; 잠 16:20; 렘 17:7)들은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구약성경의 원래 맥락을 놓친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시 2:2,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구약시대에 왕의 임직과 연관된 주요 구절들이 빠져 있다(삿 8:9; 삼상 9:16; 왕상 1:34).

시 2:7, ‘너는 내 아들’ 구는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과 다윗 왕의 입양 관계와 언약 관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연관된 관주를 포함하여야 한다(삼하 7:14, 시 89:26-27).

시 2:9, ‘철장’에 대해서는 『개역개정 관주』가 제시하는 신약의 세 본문 외에 구약의 두 본문을 넣어야 한다(시 45:7; 125:3).

(4) 히브리 시의 중심 특징인 대구(對句)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대표적이다.

시 2:1의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대구 관주가 필요하다(창 25:23; 시 44:3; 105:44; 잠 14:34; 사 34:1; 43:9).

시 2:2의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 대한 대구 관주가 필요하다(삿 5:3; 잠 8:15; 31:14; 합 1:10).

시 2:3의 ‘땀 것’과 ‘결박’에 대한 대구 관주가 필요하다(렘 2:20; 30:8).

(5) 불필요한 구분

시 2:11, ‘경외함으로’와 ‘섬기고’를 나누었으나, ‘경외함으로 섬기고’로 묶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빌 2:12; 히 12:28; 고후 10:5; 뱀전 1:2).

시 2:12에서 ‘비교 관주’와 ‘일반 관주’로 구분한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6) 빠뜨린 관주

시 2:12의 ‘복이 있도다’는 1:1의 ‘복 있는 사람’과 연결되며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꼭 다루어져야 할 구절로 보인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현재의 『개역개정 관주』는 성경의 모든 장절(章節)에 구조 분석을 담고 있으며, 시편 2편과 연관하여서는 세 연으로 분석한 것을 볼 때, 기존하고 있는 현대의 스터디 바이블과 비교 검토하면서 새로운 구조 분석을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성서학계는 그 파라다임을 ‘역사적 분석’에서 ‘문학적 분석’으로 이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 분석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건실한 구조를 우리 성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관주 성경과 해설 성경은 근본적으로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성경과 스터디 바이블에서 ‘관주’와 ‘해설’이 합쳐져 가는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구조, 형식, 배경을 본문 안팎에 넣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모든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개역개정 관주』는 건실하고 유익하며 탁월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1세기용 관주 성경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난 백 년 동안의 학문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새롭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주요어

관주 성경, 관주 체계, 시편 2편, 절 비교, 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 관주

Chain Reference Bible, Reference System, Psalm 2, compare the phrase, The Holy Bible with Reference, the reference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참고문헌

『관주 성경전서 간이국한문 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4.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6, 1962.

『구역 관주 성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개정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2.

정태용 외, 『鮮漢文 貫珠聖經全書』, 경성: 대영성서공회, 1926.

『해설·관주 성경전서-독일성서공회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7.

Bible Society's Chain Reference Bible. Good News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London & New York: Collin's Clear-Type Press, 1967.

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2000.

The New Testament in the Revised Version of 1881 with Fuller Refer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1910.

김태룡, “우리말 성서 ‘관주’의 새 인식을 위하여,” 『성경원문연구』 6 (2000).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박동현,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전무용,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4 (1999).

K. Barker, eds., et al., *The NIV Study Bibl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5.

M. C. Albl, “*And Scripture Cannot be Broken*,”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Early Christian Testimonia Collections*, Leiden: Brill, 1999.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8.

R. C. Sproul, B. K. Waltke and M. Silva, *New Geneva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95.

R. Grant,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2nd ed., London: SCM, 1984.

R. H. Bainton, “The Bible in the Reforma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The West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Day*, vol. 3, S. L. Greenslade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V. D. Verbrugge, ed.,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Harper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91.

W. A. Meek, ed. et al., *The HarperCollins Study Bible. NRSV*,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Abstract>

An Analysis on the Reference System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salm 2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evaluate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Reference System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The present references and its system go back to the original version published in 1912 and have gone through modifications in the following revision processes. The base text of the original references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as taken from *the Revised Version of 1889 with Full References* which was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in 1889.

In order to attain an objective evaluation of relevancies of references found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the writer made comparisons with several contemporary versions such as *Bible Society's Chain Reference Bible. Good News Edition* (1985), *The NRSV. Harper Study Bible* (1991), *The HarperCollins Study Bible. NRSV* (1993), *New Geneva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1995), *The NIV Study Bible* (1995), and *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2000).

As for the strength of the reference system in general and references found in Psalm 2 in particular, the writer made several observations as follows:

(1) The four major constituent parts of the reference, such as “citation, comparison, see, and general” are very helpful compared with references of other Bibles.

(2) The reference system is found to be very strong and helpful in making connections between the OT and the NT . For example, the reference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uggest readers to compare the phrase “you are my son” in Psa 2:7 to Mat 3:17 and Mat 17:5.

(3) The overall references seem very reliable and useful, and even excellent in some occasions. For example, it suggests readers to interpret ‘to set’ (nasak) in Psa 2:6 with reference to Pro 8:23.

However, there are some weaknesses, such as (1) errors, (2) loosing accuracy, (3)

missing the Old Testament context, (4) failing to reflect the parallel word pair, (5) demarcating phrases unnecessarily, and (6) omitting references.

In conclusion, the overall references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can be evaluated as the quaint essential fruits of the 19th century biblical scholarship of England, being very reliable, useful and sometimes excellent. However, it needs an overall revision to incorporate the scholarly findings by the 20th century biblical scholarship.